

‘광주형 에너지분권’ 추진…마을 단위 전기 생산·공유

올해 총사업비 103억 투입해 시민참여형 생태계 조성 거점센터 15곳 운영…신재생에너지융복합 1160곳 시행

광주시가 시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공유하며 마을 단위의 자립을 이끄는 ‘광주형 에너지 분권 실현’에 본격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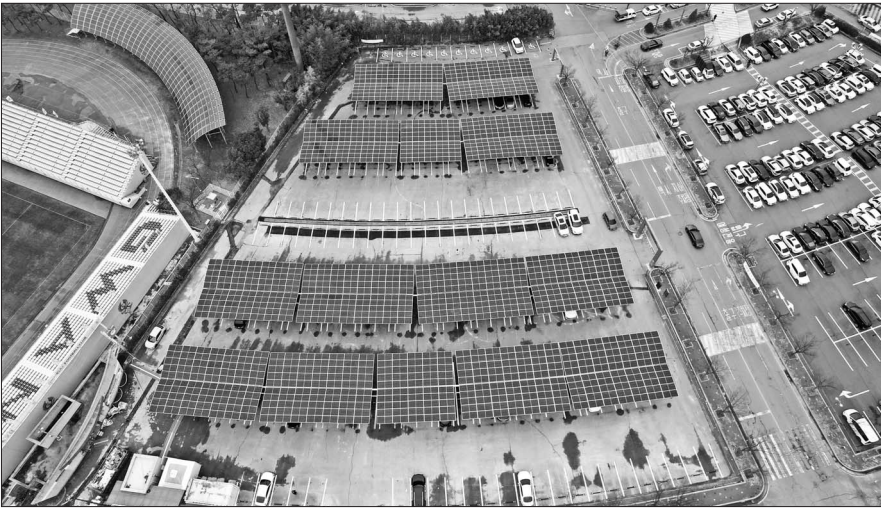
광주시는 2일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시민 참여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운영,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 강화, 주택 햇빛발전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시민 직접 확대’와 ‘체감형 보급’에

두고 올해 총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 일상 속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

먼저 4억7000만원을 투입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5곳을 운영한다.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는 시민들이 모여 기후 위기를 학습하고, 에너지 절감과 생산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등 생활 속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는 공간이다. 개별 가구를 넘어 마을 공동체 전체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일반 협동조합이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친환경 발전소를 조성할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총공사비의 50% 이내(최대 2억원)를 지원한다.

주택 부문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

입, 단독·공동주택 150개소를 대상으로 ‘주택 햇빛발전소(미니태양광)’를 보급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별 20세대 이상 참여대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됐으나 지

난해부터 10세대로 완화, 진입장벽을 낮춰 지속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경제적 특전(인센티브)도 한층 강화된다. 광주시는 ‘가정용 배관다 태양광(1kW 이하)’ 설치 때 1회당 1만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신규 정책을 도입해 적극 홍보·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 사업과 연계한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84곳에 태양광 설치비를 매칭 지원하는 등 주거 형태별 맞춤형 에너지 전환 솔루션을 제공한다.

개인과 마을을 넘어 도시 기반시설의 전환도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국비 공모를 통해 확보한 예산 등 총 81억9000만원(시비 17억5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과 상가, 공공건물이 혼

재된 구역 1160곳에 태양광(4006kW),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특정구역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사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염주실내수영장 경사면 등 유류 공공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도 시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순두령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에너지 전환의 성과는 시민이 일상에서 필요성과 혜택을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미니 태양광부터 대규모 융복합 사업까지 시민과 접점을 최대한 넓혀 광주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표준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코스피 5% 급락…4거래일 만에 5000선 붕괴

‘매파’ 위기 연준 의장 지명에 글로벌 자산시장 쇼크 외인·기관 매도·개인 4조원대 매수…은값 30% 폭락

코스피가 2일 5% 이상 급락하면서 5000선이 무너졌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자 금·은 등 귀금속이 폭락하고 국내·국제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1.74p(1.95%) 내린 5122.62로 출발해 274.69p(5.26%) 내린 4949.67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5084.85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대를 달성한 이후 4거래일 만에 다시 50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지수는 5000선이 깨졌지만, 이후 낙폭을 점차 줄이면서 5196.71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다시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해 한때 4933.58까지 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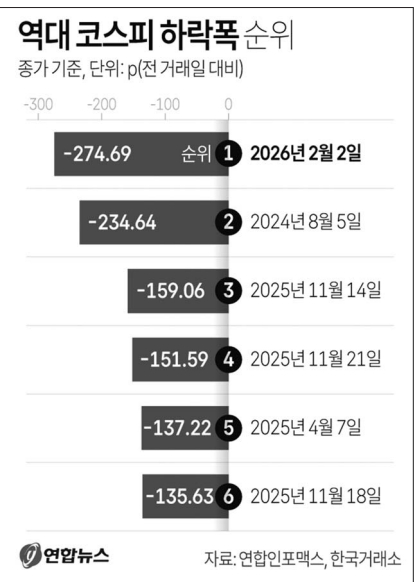
코스피 급락으로 오후 12시31분 올해 첫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하기도 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전 거래일 대비 코스피200 선물이 5% 이상 하락 후 1분간 지속되면 발동한다.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되며 5분 경과 후 자동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5161억원, 2조2127억원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올해 최대 액수인 4조587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조3579억원 매도 우위였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에서는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지난달 3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9.09p(0.36%) 밀린 4만8892.4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9.98p(0.43%) 내린 6839.03, 나스닥종합지수는 223.30p(0.94%) 떨어진 2만3461.82에 장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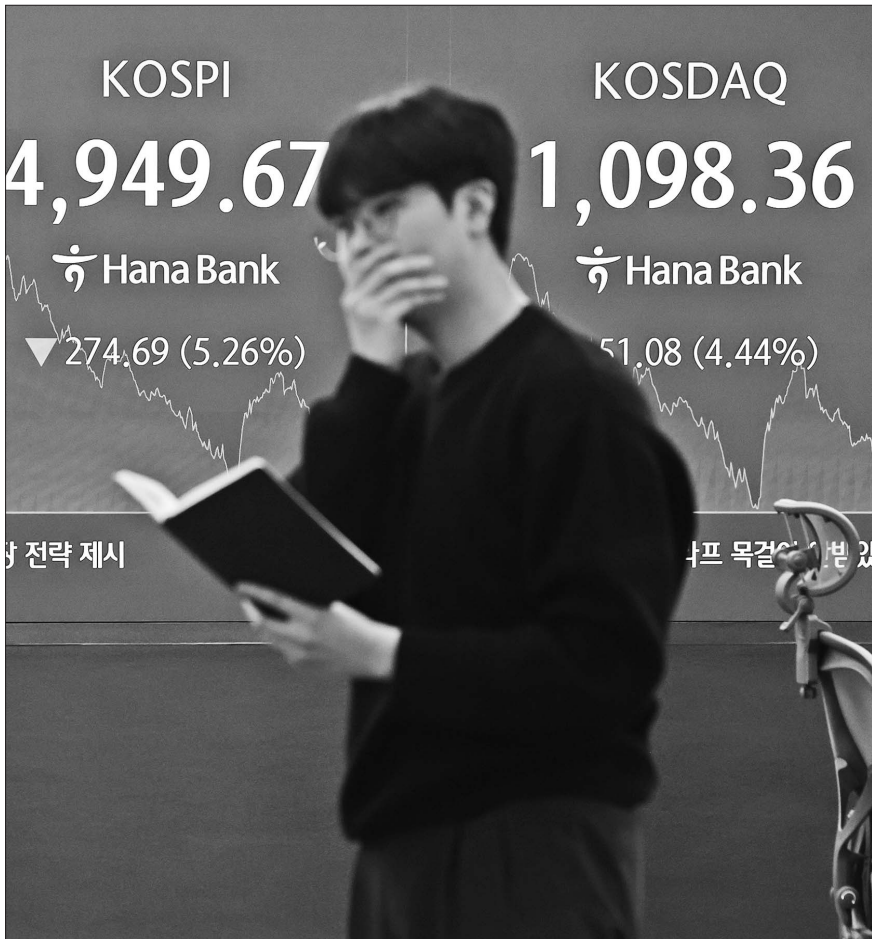
‘매파’적 위기 전 연준 의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됐다는 소식은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게다가 투기적 거래로 작년부터 급등했던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0% 넘게 폭락하면서 총격파가 증시로까지 전이됐다.

같은 날 은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5.9달러(31.37%) 폭락한 78.5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금 가격은 10% 넘게 떨어졌다.

이런 영향으로 아시아 주요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17% 내린 5만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 여파로 인해 5000선 아래로 떨어진 2일 서울 증권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증가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74.69p(5.26%) 내린 4949.67, 코스닥 지수도 51.80p(4.44%) 내린 1098.36에 장을 마쳤다.

2698.36, 대만 가관지수는 1.37% 떨어진 3만1624.03을 나타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2.02%)와 선전종합지수(-1.83%), 홍콩 항셍지수(-2.84%) 등도 하락했다.

국내 증시는 장중 패닉셀링으로 인해 특히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특수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달려와 강세 및 금리 상승, 그에 따른 주식, 귀금속 등 자산가격 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지명에 대한 금융 시장의 초기 반응은 부정적인 모습이다”며 “이번 주에도 귀금속 폭락 여진 속

차기 연준 의장의 성향 분석을 둘러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20.87p(1.82%) 내린 1128.57로 시작해 51.08p(4.44%) 내린 1098.36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118억원, 4092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5483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8원 오른 1464.3원을 나타냈다.

원재용 기자 jawodyd0318@gwangnam.co.kr

작년 전남 방문 관광객 6456만명

65만명 증가…24시간 체류 전국 평균보다 7시간 많아
접근성 개선·콘텐츠 고도화…2030년 1억명 달성 총력

지난해 전남을 다녀간 관광객은 총 6456만명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25년 전남 방문 관광객이 총 6456만명으로, 전년보다 1% (65만명)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증가를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관광 형태 변화와 체류시간 증가 등 구조 개선이 동시에 나타난 점은 전남 관광이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됐다.

세부적 관광 형태를 보면, 관광 위주 단기 방문에서 체험형·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했다. 축제를 비롯한 지역은 관광객이 증가한 반면, 기후 의존형 단일 축제나 콘텐츠 다양성이 부족한 지역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 방문객의 평균 체류 시간은 24시간 7분으로 전국 평균(17시간 1분)보다 7시간 이상 길었다. 이는 전남이 ‘잠시 들렀다 가는 관광지’가 아닌 숙박하며 경험을 축적하는 완결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됐다.

대중교통 접근성 한계는 과제로 드러났다. KTX와 주요 관광지 간 연계 부족, 섬·해안 지역 이동 불편 등으로 개별 여행객 유입에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가격 할인 중심 전략은 첫 방문 유도에는 효과가 있으나 재방문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객 감소로 나타

났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5월과 10월에 집중되는 계절 편중 구조, 콘텐츠 부족과 시설 위주 개발에 따른 관광 브랜드 경쟁력 약화, 관광 서비스 종사자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 이후 연평균 10% 성장을 목표로 2026년 7102만명, 2030년 관광객 1억명 달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형 체류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목포·보성선 철도 등 SOC 확충을 관광상품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세계세박박람회와 연계한 ‘전남 섬 방문의 해’ 운영과 지역 화폐 환급형 반값여행을 통해 재방문·재소비를 유도하고, 위케이션 마케팅으로 청년층 장기 체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패 트래블, 파크골프 패키지, 리마인드 웨딩여행, 남도해양 관광열차 등 비수가 대응형 특화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AI·빅데이터 기반 관광 플랫폼 ‘JN투어’ 고도화를 통해 이동·체류·소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관광을 추진한다. 더불어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에 대비한 무비자 입국 연장과 국제 크루즈 유치 확대로 여수세계세박박람회 성공 개최와 해양·섬 관광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국민성장펀드’ 지역 프로젝트 발굴 본격화

지자체·정책금융기관 간담회…협업 방안 공유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간 100조원 넘는 지방 우대금융을 공급하는 등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은 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지방정부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전국 지방정부 대상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심의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 발굴, 협업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 지방정부는 정부의 5국 3특 전략과 연계해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에 적극적으로 사업 제안을 하고 있으며 지난날 30일 기준 비수도권 지역에서 91건, 약 70조원 규모의 사업이 제출됐다.

광주시는 주력 사업의 AX 지원·자율주

행 개발사업 지원을, 전남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미래형 핵심상품 생산기지 건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정부는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와 사업구상 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국민성장펀드 투자 유치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모집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충북도는 지역 내 제조업 공장들을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구상 등을 공유하며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향후 금융위와 산업은행 사무국은 투자심의위원회와 기업금융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 정부 농정 대전환 정책 과제 추진

유통구조 개혁·청년농 육성 등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열근로 사업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농협은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정 쌀값 유지를 위한 수급관리 역할 강화 △반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아침밥 먹기 등)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량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 수입 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정착시키는 한편, 농협공판장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 확대와 스마트농업 지원 정책으로 △해의 수요를 반영한 신상품 개발 △신규 유통망 개척 △중소농 중심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출곡 다변화와 전국 단위 수출조직 육성으로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농협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2026년 말까지 보급형 스마트팜 2000호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고객 리포트 할인 혜택

한화·롯데 등 10개 제휴

중소기업중앙회는 말띠의 해를 맞아 노란우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리조트 회원가 이용이 가능한 예약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지역을 방문하도록 지원, 생활복지지를 높이는 동시에 내수 회복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휴에는 한화·소노·리움·롯데·휘닉스·금호·켄싱턴·옴팜·비체펠리스·디오션 등 10개 리조트가 참여한다. 각 리

조트는 지역별 특색 있는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합리적인 회원가를 통해 고향 방문이나 여행 수요를 촉진하도록 구성했다. 노란우산은 숙박 혜택 외에도 가입자를 위한 경영·생활 전반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분야 무료 상담과 경영지원, 가입 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상 제공, 국립암센터 정밀형 건강검진 할인 및 건강검진 플랫폼 최대 49% 할인, 마케팅·AI 활용 등 역량 강화 교육과 힐링 교육, 쇼핑·전자제품·차량 렌트 제휴, 채권행사 대행 서비스, 공제기금과 각종 보험·재해공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